

# 연변 '전통브랜드' 기업 발굴, 상업무역 새 성장점 도모

## 2025년 제1회 '전통브랜드' 평의 선발 인정 활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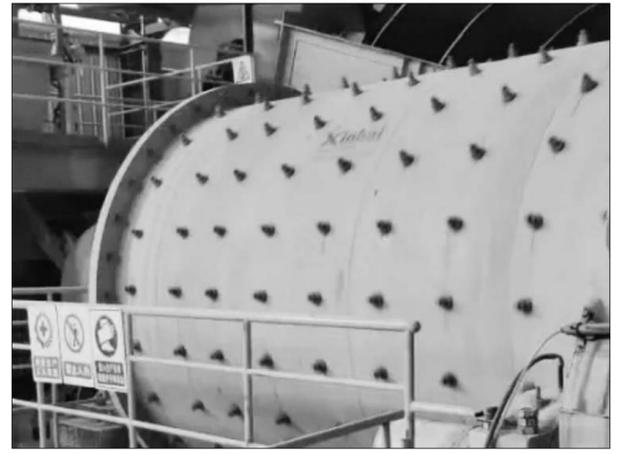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연변에서는 2025년 제1회 '전통브랜드' 평의, 선발, 인정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연변의 특색을 계승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호의 시범 및 인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변의 유구하고 독특한 상업 문화를 전시하고 전파하며 상호 영향

력을 확대하여 연변 상업무역의 새로운 성장점을 만드는 데 취지를 두었다. 활동은 연변에 등록되어 있거나 본점이 연변내에 위치한 상업무역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의 제품, 기술 또는 브랜드가 대중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상호, 상표 혹은

브랜드 창립 시간이 3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활동 기간 '전통브랜드' 기업, '전통브랜드' 잠재력 기업, '전통브랜드' 무형문화유산 기업을 평의, 선발한다. 동시에 '전통브랜드' 육성, 비축 명단에 입선된 기업에 한해 플래트홈 구축, 홍보, 기업 봉사 등 면에서 동등

한 정책 지원을 제공해준다. 평의, 선발은 음식, 숙박, 도매소매, 의약보건, 식품가공, 직물제조, 목제품제조, 문화공예, 주민봉사, 연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분야 등 10대 류형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진행된다. 기업 신청은 <전통브랜드 인정 및 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그중 '전통브랜드' 잠재력 기업은 기업(브랜드)의 창립 시간과 주요 경영 업무의 연속 경영 시간이 '전통브랜드' 기업의 신청 조건과 다를 뿐 기타 제출 서류는 모두 같다. 신청은 주 직속 각 관련 부문, 각 현, 시 상무부문의 추천, 관련 업종상회, 협회 추천, 기업의 자발적 추천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기업은 '전통브랜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무부문에 신청한다.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는 각급 상무부문의 초심 후 주 상무부에 추천하여 정식으로 신청한다.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인터넷 투표를 하며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평의위원회는 확정된 절차와 평의, 선발 표준에 따라 평의한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최종 순위를 매체에 공시하고 의견이 없으면 '전통브랜드'로 인정한다.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통브랜드'에 간판과 증서를 발급한다. / 김영화기자

# 화안하금광 올해 광석 10 만톤 채굴 예정



화안하금광은 올해 1월부터 2월 까지 지속된 시험생산 기간 28 킬로그램에 달하는 암제 품 금을 생산해 내 약 1,792만원의 공업생산액을 실현했다. 화안하금광 대상은 주로 채광, 선광, 미광저장고, 사무구역 및 보조시설 등을 건설하며 금광석 채굴 및 선광 가공업에 종사하게 된다. 대상은 올해 3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생산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연간 10 만톤에 달하는 광석을 채굴하여 3억원의 생산액을 달성하게 된다. 길림위광공업유한회사는 채광, 선광, 미광, 광산물 가공과 판매를 통합한 황금광업개발기업으로 2020년 안하구 금광의 탐사탐광권

을 획득하였고 2021년에 길림성공업및정보화청으로부터 광구 건설대상 립안 비준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에 채광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이 대상의 총계획투자액은 3억 8,000만원으로 현재 회사는 광구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종합건설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 부총경리 왕필량은 "광산자원 개발 전 과정에 우리는 광산채굴의 합법화, 자원 리용의 고능률화, 채굴 방식의 현대화, 채굴작업의 청결화, 업무관리의 규범화, 안전생산의 표준화, 광구환경의 생태화를 확보하고 국가 표준에 따라 친환경광산, 지능광산, 디지털광산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 연변조간

# 연룡도신구, 광주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0일, 연룡도신구는 광동성 광주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연룡도신구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길림성상무청, 광동성성형미용협회, 광동성길림상회에서 협조했다. 광동성성형미용협회, 광동성길림상회, 광주시 문화관광기업, 성형미용기업 책임자 및 광주시, 심수시의 연변적 기업가 등 3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길림성상무청 투자유치종합조를, 광동성성형미용협회, 광동성길림상회 책임자 축사에 이어 참석자들은 연룡도신구 홍보 영상을 함께 관람했다. 이어 연룡도신구관리위원회가 연길동북아의료양생산업단지를 소개하고 주해역승생물제약유한회사 관계자가 관련 발언을 했다. 회의에서 연룡도신구는 주해역승생물제약유한



회사, 광동강발유한회사, 광주화미미용성형병원과 기본협력협의를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회의 참가자들은 좌담과 교류를 진행했다. / 김영화기자

길림성상무청 투자유치종합조를 관련 책임자는 축사에서 광동의 의료미용기구, 생물과학기술기업을 성심성으로 초청하면서 광동으로 특색의료미용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다국의료미용산학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장백산의 생태보물'이 세계적인 '뷰티경제'의 황금 명함어 되게 하자고 밝혔다. 광동성성형미용협회 관련 책임자는 의료미용산업은 전체 경제체계의 유망 업종으로 광동성에는 4,000여개의 의료미용기업이 있고 그 자산가치는 4,000여억원에 달한다면서 연룡도신구는 동북아를 향한 중요한 대외교류 창구인 만큼 의료미용·건강양생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전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영화기자

# 돈화 황니허진

## 올해 목이버섯산업 예기 생산액 4.5 억원

근년래 돈화시 황니허진은 목이버섯산업을 의탁으로 이미 규모 육성, 가공 전환, 브랜드 마케팅의 전반 산업사슬 모식을 형성했으며 2024년에는 국가급 농업산업강진에 평의되었다. 현재 황니허진에는 균주머니 가공 기업 16개와 균종 연구, 개발 및 판매 기업 4개 있는데 올해 7,500톤의 목이버섯을 생산하고 4억 5,000만원의 생산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돈화시백영식용균배전문합작사는 2021년에 설립되었는데 주로 균주머니 가공에 종사한다. 이 합작사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에

전자동 점균기계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전자동화 생산을 실현했다. 황니허진에는 백영식용균배전문합작사와 같은 균주머니공장이 16개가 있다. 현재는 목이버섯 균주머니를 가공, 생산하는 성수기로 하루 가공 능력이 150만개 좌우인데 이는 황니허진의 수요를 기본상 만족시킬뿐더러 돈화시 기타 향, 진의 주문도 받고 있다. 목이버섯은 황니허진의 주도산업으로서 현재 균종 연구, 개발, 균주머니 생산, 기지 건설, 제품 가공, 물류, 판매, 폐기물 처리 등을 일체화한 전반 산업사슬을 구축했다. / 돈화뉴스

# 연변 민영기업 고품질 발전 금융 지원 전문좌담회 연길서

14일, 중국인민은행 연변분행은 연변주기업연합회, 주재정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연변감독관리분국과 연합으로 2025년 연변 민영기업 고품질 발전 금융 지원 전문좌담회를 소집했다. 전 주 금융기관과 일부 민영기업 대표들이 좌담회에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은행, 기업 상시화 연결 기제를 구축하고 금융이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함에 있어서의 어

려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선전, 경험 공유, 문제 연구토론을 통해 금융자원이 실물경제를 더 정밀하게 부축하고 민영기업에서 융자하기 어렵고 융자가 비싼 등 걸림돌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 주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취지로 삼았다. 좌담회에서 중국은행 연변분행 등 4개 금융기구 대표가 지방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한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

민영기업을 위해 봉사한 혁신 제품 및 전형 사례를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영기업들은 융자 수요, 금융정책의 착지 어려움 등 문제에 대해 금융기구와 좌담을 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분행 관련 책임자는 좌담 상황을 진지하게 정리하고 임무명세서를 형성했으며 그에 따른 최적화 방법을 연구했다. 주기업연합회에 따르면 향후 각 금

융기구와 각 현(시) 기업연합회는 민영기업 봉사를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고 정책 시달, 자원 배치와 문제 조를을 실제적으로 총괄하여 금융이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행동의 고능률 추진을 보장함으로써 '정부에서 플래트홈을 마련하고 금융기구에서 조력하며 기업에서 기회를 쟁취하는' 협동 국면을 형성하기 위해 진력하게 된다. / 분지종합

# 도문시인재부화단지 5월 운영



일전 도문시인재부화단지 건설현장에 들어서니 100여명의 일꾼들이 작업에 바빠 돌아치고 있었다. 이 대상은 부지면적이 3.08만평방미터, 건축면적이 3만평방미터에 달하며 2기로 나누어 건설하게 된다. 주요 시설로는 인재부화청사, 인재숙사, 인재봉사중심, 기술인재대시절도 함께 건설될 예정이다. "대상은 주로 건축장식과 실의 배관망, 도로포장, 록화작업 등 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전체 진행

률은 60%이며 올해 5월까지 나머지 장식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공측 대경리 황명의 소개에 따르면 대상이 완공되면 350명의 숙박, 양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한다. 도문시인재부화단지 기반시설은 도문시의 중요한 건설대상중의 하나이다. 올해 도문시는 104억 8,000만원을 투입해 106개의 중점대상을 실시할 계획인데 그중 신축 대상은 71개, 지속건설 대상은 35개이다. / 연변조간

# 화룡시 28 마리 량질 고기소 광동으로



일전 28마리의 량질 고기소를 가득 실은 운반차가 목장을 벗어나 광동성 해주시 광동-향향-오문 대만구 공급기지로 향했다. 이는 화룡시공급판매합작사가 화룡우정, 길림농산물대만구진입(광동)공급사슬유한회사와 손잡고 가동한 첫번째 남북 경제협력이다. 화룡시공급판매합작사와 우정부문의 협력은 목축 제품의 판매 판도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목축업이 규모화, 표준화로 나아가도록 추동했다. 이와 동시에 길림과 광동

두 지역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제의 교량을 구축했다. 이번 협력은 깊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데 이는 두 부문에서 농업 자원을 통합하고 지역 발전을 추동하는 길에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향후 쌍방은 각자의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콜드체인 물류, 농업물자 공급 보장, 농산물 판매 등 여러 분야에서 깊이 협력할 전망이다. / 연변조간